

대우건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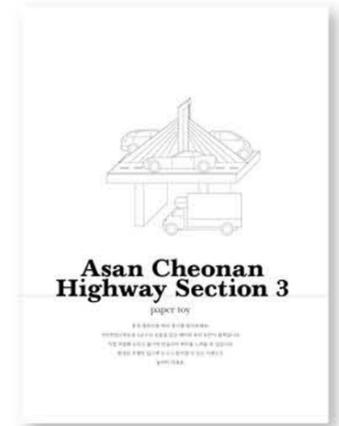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래픽스 디자인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재이, 김지원
표지 일러스트 잔잔
인쇄 금강인쇄



대우건설인 01+02월호 이벤트 당선작

당선작 발표

- 1 송도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현장 김진숙 사원
- 2 미래전략기획팀 장철원 과장
- 3 GTX-A1공구현장 김상일 과장
- 4 사업지원단 오민석 과장
- 5 주택건축전기팀 정필웅 대리
- 6 플랜트사업지원2팀 윤호준 차장
- 7 과천시식정보타운지구조성현장(토목) 김태형 대리
- 8 지역안전팀 박종민 과장



페이퍼 토이 이벤트

마지막 장에 동봉된 페이퍼 토이 도안을 꾸며
나만의 건물 모형을 만들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
2021.3.17 - 4.16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완성한 페이퍼 토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게시물에는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 주셔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완성한 페이퍼 토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페이퍼 토이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enc.com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11+12월호에서 다시 한번, 연말 포토제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각호마다 동봉되는 페이퍼 토이 6개를 모아
두면 당첨 기회가 더욱 높아지겠죠?
올 연말, 대우건설 시공물들로 만든 멋진 마을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u>check</u>	
일과 삶,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08
<u>share</u>	
하루의 페달을 굴러 잡는 균형	10
<u>explore</u>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법	14
<u>jump</u>	
2021년 대구를 물들일 푸르시오	18
<u>tomorrow</u>	
대우건설의 영업이익 55.3% 증가, 전망은?	22
<u>technology</u>	
도면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 Sam	24
<u>our scene</u>	
당진과 천안을 잇는 가장 빠른 길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현장	26
<u>world report</u>	
세 명의 직원에게 듣는 베트남 이야기	
THT2단계인프라현장	36
<u>how to</u>	
내일 더 가벼워져라, 버리기 연습	42
<u>special day</u>	
이렇게 맛있는 채식이라면, Vegan diet	
컴플라이언스팀 조유현 과장 가족	44
<u>from the city</u>	
이산화탄소 배출 0%의 계획도시, 마스다르	50
<u>대우건설인+</u>	
아버지의 마음으로-IT기획팀 김재성 차장 & Jose Sante Valparaiso	54
<u>cartoon</u>	
일상공감툰	56
<u>대우건설 뉴스</u>	
2021년 03+04 대우건설 뉴스	58
<u>독자의견</u>	
1+2 독자의견	60



아산천안고속도로 3공구의 주탑

균형

Keep Your Balance

check — 8
 일과 삶,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share — 10
 하루의 페달을 굴러 잡는 균형
 explore — 14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법
 jump — 18
 2021년 대구를 물들일 푸르지요

keep your balance

나만의 균형

몸과 마음, 일과 생활, 감정과 사고, 부분과 전체.
 삶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일상은
 우리를 어딘가로 기울어뜨리곤 하는데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중요성을 말하며,
 사회 혹은 주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나만의 척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인 3+4월호에서는 일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나만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일과 삶,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지상의 모든 것은 살아가기 위해
균형을 이룬다고 한다.
대우건설인 100명에게 균형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check

Check Your Balance

Q
내가 생각하는
'균형'과 가장
비슷한 정의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상태

65%

- 어떤 기준에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은 상태 16%
- 무언가가 중심을 잡고 균건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 10%
- 반대 지점에 놓인 것들이 비슷한 무게를 유지하는 상태 9%

Q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업무 외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조직 분위기

44%

-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동료들의 태도 40%
- 퇴근 시간 엄수 등 업무 시간의 명확한 분리 14%
- 회사의 성과만이 아닌 개인의 발전을 고려한 업무 분배 2%

Q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필요한) 태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나만의 가치와 기준 세우기

45%

- 수면, 식사, 소소한 취미 등 루틴 챙기기 26%
-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 24%
- 반대 지점에 있는 두 가지 가치에 완전히 몰입해보기 2%
- 기타: 마음 비우기, 명확한 목표 의식에 기반한 일상생활, 모든 것에 균형 이루기 3%

57%

Q
보다 균형 잡힌 조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성원 개인의
가치 및 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 업무 및 태도 상향 평준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22%
- 구성원의 업무 능력 다양화 17%
- 직원 개인의 발언권 보장 3%
- 기타: 지속적인 비즈니스 예절 교육 1%

Q
올해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균형 영역은?

과거와 미래에 갇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기

35%

- 일과 생활 사이의 적정선 찾기 27%
- 나이 들과 젊음 사이에서 '잘' 나이 들기 24%
- 감정(감성)과 사고(이성)의 고른 발달 13%
- 기타: 무사히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가족과 함께하기 1%

하루의 페달을 굴러 잡는 균형

자전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페달을 굴러야 한다.
일상 속 '이것'과 '저것' 사이 균형을 잡기 위해 각자의 페달을
굴러가는 네 직원의 이야기.



강남영업지사
이세호 과장

마음과 마음, 긍정과 부정 사이

삶의 균형이란, 일상의 어느 부분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마음 속 균형은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살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깃들 때마다
나만의 마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명상 등으로 마음을 안정 시키고는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영화<쿵푸팬더2>에서 주인공 포가 마음을 모으고 자주 평정심을 읊조리는 것처럼 말이죠.



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현장
우제현 대리

저녁이 있는 삶, 일상과 업무 사이

회사생활 5년 차, 올해 갓 진급한 대리입니다. 입사 직후부터 업무에 치여 야근이 잦았습니다.
야근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인 시간이 적었고, 집에 돌아가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 제 가장 큰 목표는 업무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일과 중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팀 상사분들도 일부 직원에게 업무가 몰린다고 판단되면 업무량을 재분배 해주고, 팀원들에게
'칼퇴'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을 누리는 일상이 당연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요. 모두의 노력과 고민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경영관리팀
김경민 과장

아이와 나, 직장인과 엄마 사이

둘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회사와 함께였죠.

요즘 부쩍 첫째를 출산하고 복직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온전히 업무에 몰입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에게 집중하며 나름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잘 잡아 왔습니다. 그 시간을 건너 다시 둘째 아이가 생긴다는 게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한동안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해 온 삶의 균형과 흐름이 곧 깨질 것이고, 다시 균형을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잘 헤낼 거라고 믿고 싶어요.



파주포천고속도로3공구현장
임헌수 부장

평생의 짝꿍, 남편과 아내 사이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주말부부이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집에 가는 주말이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한편 주말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아련해지고는 합니다. 지난 주말 아내를 즐겁게 한 일이 있는지, 혹은 서운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하면서요. 특히 평생 나와 아이들을 챙기고 돌봐 온 아내가 혼자 집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머리 속이 복잡하고 고마우며 미안해집니다. 아내가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녀의 말에 더 귀 기울여주고 아내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어 가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법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 나만의 균형감을 익히는 것이다. 중심을 잡아가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하기 좋은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쉽고 가볍게 나를 찾는 재미 '레이블링 게임'

무수한 선택지 앞에 답을 골라야 하는 세상 속,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와 삶의 목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무거운 물음에 관한 가벼운 질문들이 작년 한 해 게임처럼 속속 등장했다. MBTI, 폰대 레벨 테스트, 나를 꽃으로 표현한다면, 내 성격과 가장 비슷한 명품 브랜드는 등 각종 자기 성향을 유형화하는 테스트들이다.

책<트랜드 코리아 2021>에서는 팬데믹 시대의 현대인이 실존적 불안을 고민하며 내 안의 진짜 나 즉, 자기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특히 개인이 갖는 정체성의 불확실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소비의 즐거움으로 치환되는 경우를 일컫는데, 사회나 가정, SNS 등에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을 브랜딩하는 수단으로까지 확장된다. 꼭 심각해야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처럼 가볍고 즐겁게 나를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다.



place

explore



도심 속 나만의 작은 숲 '그린랩'

서울숲 바로 옆에 자리한 그린랩은 머리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찾아가 수 있는, 커다란 창밖의 숲을 그저 멍하니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합공간이다.

1층은 플라워 스텝, 2층은 서울숲을 즐길 수 있는 통유리로 된 스튜디오, 3층은 루프탑 옥상정원과 예약제로 운영되는 다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랩으로 발길을 안내하는 0.5층은 자연의 소재에서 재료의 물성을 탐구해 온 서정화 작가가 만든 가구들이 배치되어 더욱 특별하다. 2층에 들어서면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서울숲의 풍경이 눈앞 가득 펼쳐지는데, 계절과 날씨 그리고 시간에 따라 햇살과 나무 그림자가 실내 공간에 다른 모습으로 스민다. 이곳에서는 방문객 모두가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대화가 금지되어 있다. 아래층에서 받은 바구니에 든 책 한 권, 종이와 펜, 꽃과 함께 오직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바구니 속 콘텐츠는 계절에 따라 테마가 바뀌며, 필사할 수 있는 원고지와 책의 글귀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18-11
평일 12:00-19:00
월요일 휴무

book



젊음과 나이 들의 경계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1945년에 태어나 2018년에 세상을 떠난 문학평론가이자 불어번역가인 황현산.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생전에 그가 기록해왔던 트윗을 모아 엮어낸 책이다. 트윗의 시작은 2014년 11월, 그 끝은 2018년 6월로, 총 트윗 수만 해도 8,554개이니 페이지만도 총 668쪽에 이른다. 황현산은 암 투병으로 완전히 기력을 잃기 전까지도 트위터로 대화를 나누며 세상에 접속했다. 140자의 짧은 글 안에는 일흔 넘은 선생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지혜 그리고 번뜩이는 재치, 나이 들에 대한 회한까지 고루 담겨있다. 사소한 오타나 그 오타를 머쓱해 하며 다시 바로잡는 트윗까지 그대로 실려 있어 더욱 보는 재미가 있다.

이 책을 기획한 시인 김민정은 언젠가 선생에게 '왜 트위터를 하시냐'고 물었고, 그는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고 답했다 한다. 나이와 직위에 상관 없이 '트친'으로 수평적 관계를 맺는 트위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나와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를 사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균형을 잡아주는 만남 '밀리'

진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삶을 각자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 밀미(meet me)가 사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다. 밀미는 일상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의식적인 행동 즉, 리추얼 프로그램들을 통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감각을 깨우는 활동과 심리 상담을 결합한 '심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서전 쓰기처럼 나를 돌아보는 활동은 물론 하루에 하나씩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기, 아침 챙겨 먹기, 비건 식사하기, 나만의 패션 스타일 찾기 등 영역과 활동 범위도 다양하다. 각 리추얼마다 한 명의 호스트가 존재하는데, 회원들은 약 5~8만 원을 내고 5~20인 이하의 참가자와 함께 약 4주간 매일 화상채팅으로 만나며 리추얼을 수행한다. 그리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내용을 공유한다. 이용자들은 밀미의 매력을 '다른 참가자들과 매일 함께한다'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균형을 잡는 것, 혼자 하면 빨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하면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nicetomeetme.kr>

program



2021 DAEGU

힘을 모아 이루는 큰 성과
2021년 대구를
물들일 푸르지요

올 상반기 대구지역에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대구지역 전체 분양 31,000여 세대 중 회사가 6,600여 세대를 상반기에 공급한다. 약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대구에 8개 프로젝트를 통해 6,253세대, 경북에 3개 프로젝트를 통해 1,520세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에는 1월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요 더샵 분양을 시작으로 3월 반고개역 푸르지요 엘리비엔, 4월 상인 푸르지요 센터파크, 침산 푸르지요 에듀포레, 5월 대구 용계동 푸르지요, 대구 본리동 푸르지요, 6월 이천문화지구, 효목동 푸르지가 분양 예정이며, 경북에는 6월 구미 푸르지요 엘리비엔, 7월 경산 중산지구 C4-1,C5블록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분양 수가 상당하다.

올 상반기 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 단일 도시 기준 최대다. 푸르지요 역사상 한 반기 내 단일 도시에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수치가기도 하다. 회사는 푸르지요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인 2000년, 청구와 우방 등 지역 밀착 브랜드 위주로 선호를 보이던 대구지역에 침산 드림월드, 명성 드림월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초석으로 'I Love DAEGU, I Love DAEWOO' 캠페인을 시행했었다. 당시 유행하던 'I Love NY'에서 착안해 진행한 통합 광고로, 대구지역 TV 광고 캠페인 및 다양한 매체 광고 등을 진행하며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본다. 대구 분양시장이 불황이었던 2013년 이후 다소 주춤했으나, 작년부터 회사의 공급 계획이 재점화되었다.



판매홍보팀 한창민 차장

PRRU PRRU



주택건축사업1팀 이상혁 사원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대구의 분양 열기도 한몫했을 것 같다. 그렇다. 특히 작년은 대구 내 역대 최대의 아파트 물량이 공급된 해다. 총 29,960세대로, 2년 연속 최다 물량을 기록했다. 작년 9월에는 대구에 전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실시되었으나, 경쟁률 감소 없이 높은 청약률이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 촉진지구인 동구를 비롯해 서구의 대규모 단지로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진행되었다.

2021년 대구 분양시장 전망도 긍정하다.

작년에 이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연초에 발표된 KB주택가격 동향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33.2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었던 남구에 공급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분양에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다.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브랜드 홍보 전략을 통해 더욱 종합적인 어필이 필요할 것이다.

대구지역 내 푸르지요 브랜드 통합 광고가 진행 예정이라고.

올해는 대구지역 전체에 3만 세대가 집중적으로 물리는 시기다. 개별 프로젝트들만의 광고만으로는 자칫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 분양 홍수, 우후죽순인 시장에서 푸르지의 분양 프로젝트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을 물론, 추후 대구지역 내 추가 수주 및 푸르지요 브랜드 입지 강화를 위해 개별적인 브랜드 홍보가 아닌 통합 브랜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또한 올해 대구에서는 최대 물량의 분양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까지

올 상반기 상당량의 푸르지가 대구 곳곳에 수놓아질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수가 많은 만큼 단지별 개별 홍보 외 대구 통합 홍보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INTEGRATION PROJECT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대구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브랜드,
푸르지오의 브랜드 영상을
담았습니다.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브랜드 통합 광고는 수주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구지역의 푸르지오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광고를 진행해 지역 내 리더 브랜드 이미지를 이어가고자 한다.

브랜드 통합 광고의 형태와 내용이 궁금하다.

‘2021년 대구를 푸르지오로 물들인다’는 콘셉트다. 분양 예정 프로젝트 소개는 물론, 기존에 회사가 공급한 대구 분양 실적을 포함해 대구의 자랑거리인 삼성 라이온즈 파크, 오페라 하우스 리모델링 등 회사가 진행해 온 다양한 대구 내 시공 사례를 적극 어필하는 통합 영상물 또한 노출할 것이다.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대구지역을 푸르지오로 물들일 것이다.

분양 관련 브랜드 광고의 특징이 있다면.

분양 즉, 아파트를 판매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유관 부서가 힘을 모아 이어온 작업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숲의 전체를 보되 디테일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번 통합 광고는 사전판촉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비대면 시대에 더욱 진화되고 있는 스마트 상담, 챗봇 어플,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이다.

주택건축사업본부의 성장세도 짚고 넘어가보자. 최근 2년 연속 주택공급 실적 1위 달성에 이어 올해 역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건축사업본부 성과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푸르지오 브랜드와 상품 자체의 우수성이다. 우리 본부만의 저력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려울 때 더욱 적극적으로 기세를 몰아붙이고 시장이 안정기에 들어설 때는 향후를 준비하며 푸르지오 브랜드의 성장을 확대해온 회사 전체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주택건축사업3팀 이종호 사원

실질적 성과 외 본부에서 배운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분양은 단순히 집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라는 걸 몸소 실감했다. 2019년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입주를 시작으로 정제되었던 초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점화된 사례가 그것이다.

대구지역 푸르지오에 입주할 고객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이번 주택 공급량 선점은 오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의 핵심은 입주 이후의 만족도다. 푸르지오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려면 입주민들의 삶 속 질을 높여야 한다. 홍보, 수주, 분양, 입주, 관리 등 모든 단계의 유관팀이 협업하여 고객들이 더욱 풍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부마케팅지사 권영민 과장

2021년 상반기 대구지역 분양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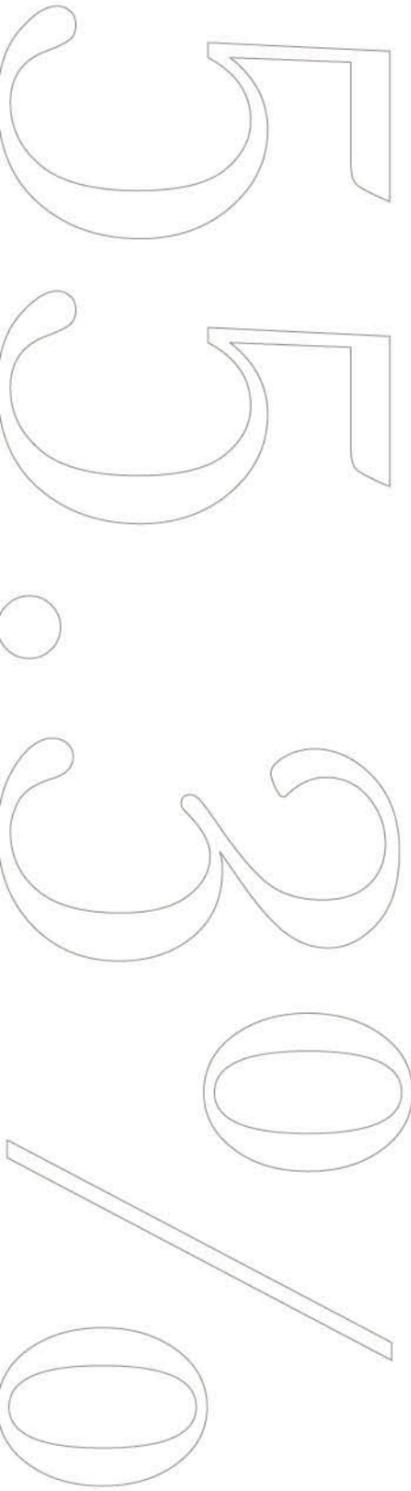
*프로젝트별 분양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월	프로젝트명(가칭)	위치	공급개요
1월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대구시 수성구 파동 27-17번지 외 301필지	아파트 1,299세대
4월	침산 푸르지오 에듀포레	북구 노원동1가 228번지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499세대 / 오피스텔 69실
4월	반고개역 푸르지오 엘리비엔	서구 내당동 868-1	아파트 239세대
5월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달서구 상인동 1332-319번지 일원	아파트 990세대
6월	용계동 공동주택	동구 용계동 588-3번지 일원	아파트 1,299세대
6월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동구 효목동 430-4	아파트 749세대
6월	대구 이천 문화지구	남구 이천동 474-1번지 일대	아파트 924세대
7월	분리동 주상복합	달서구 분리동 358-5	주상복합 아파트 993세대 / 오피스텔 164실

tomorrow

글.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홍장원 기자

대우건설의 영업이익, 그 전망은? 55.3% 증가



전년 기준 55.3%의 이익 증가세 보여

최근 건설업계가 대우건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오랜 부진을 뚫고 연일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역시 잇달아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발표된 대우건설 실적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58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이익이 53.3% 증가한 것이다. 순이익은 2,826억 원으로 40.4%나 뛰었다. 6.9%를 찍은 영업이익률은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였다. 한때 대우건설은 해외 사업장 부실 논란이 불거져 회계법인 의견 거절 수모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여준 행보는 과거를 떠올리기 힘들 정도다. 지난해 대우건설은 이라크 알포 항만공사(2조9,000억 원), 나이지리아 LNG Train7(2조1,000억 원), 모잠비크 LNG Area1(5,000억 원)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따냈다. 특히 수의계약을 따낸 이라크 알포 항만공사 사업에서는 앞으로도 추가 수주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대우건설 효자 사업장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벌이는 THT(띠이호띠이) 사업은 당기 순이익률이 30% 전후로 매우 높다. 2027년까지 꾸준한 매출인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회계의견 거절 사태를 겪은 대우건설은 해외사업 시 매우 보수적인 회계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해외 사업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지난해 대우건설이 기록한 13조 9,126억 원의 수주 실적은 연초 목표치(12조 7,700억 원)까지 넘어선 숫자다. 코로나19 리스크로 전 세계 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뚫고 이룬 성과라 더 값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우건설의 피나는 노력과 KDB인베스트먼트간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리스크 관리 역량 확충, 원가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비용 절감 성과가 제대로 먹혀 들고 있다. 과거 사업부 별로 보증을 따로 가입해 중복되는 보험료가 많았지만 이를 하나로 관리하며 입찰을 통해 비용을 대대적으로 절감하는 식이다. 현금중심경영이 무사히 적용된 결과 지난해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40% 넘게 떨어지는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기대감 높아진 향후 3년간의 매출 성과

대우건설이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3개년간 수주 및 매출 목표를 함께 공시한 것은 대우건설 특유의 자신감이 발휘된 결과다. 대우건설은 향후 3년간 올해 11조 2,000억 원, 내년 13조 1,000억 원, 2023년 14조 4,000억 원 규모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올해 9조 8,000억 원, 내년 12조 3,000억 원, 2023년 13조 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택사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우건설은 과거 화려했던 영광을 이미 되찾은 모양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에는 포스코건설에 근소한 차이로 밀려 'Top 5' 자리를 내주고 말았지만 민간주택공급 물량만 놓고보면 2019년에 이어 1위를 기록하며 여전한 저력을 과시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아파트 2만8,978가구, 주상복합 3133가구, 오피스텔 2,365실, 타운하우스 315가구 등 총 3만4,791가구를 전국에 공급할 계획인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3년 연속 민간주택공급 1위 자리가 유력하다. 대우건설은 연초부터 흑석11구역, 상계2구역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자체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수원 망포, 부산 범일동, 양주 역세권 등 4,104가구 사업은 수익성 개선 첨병이 될 것이다.

남은 이벤트는 대우건설이 언제 제대로 된 주인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한국산업은행 소속으로 들어간 시기는 2010년 6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로 돌아갔다. 지난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건은 무리한 M&A의 대표 실패사례로 거론된다. 과거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본격적인 매각 시도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이 풍부한 해외 국부펀드가 인수 의향을 타진한다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건설 부문을 보강할 의지가 있는 국내 대기업 인수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최근 건설의 트렌드는 IT와의 융합이다. IT분야에 특화된 대기업과 건설 명가 대우건설이 만난다면 윈윈(Win-Win)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면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 Sam 기술과 정보의 만남, 편리함을 이룬다

현장에서 직원들은 매일 수많은 업무용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진을 언제, 어디에서 찍었는지 헷갈리기 일쑤다. 어플리케이션 Sam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도면 기반 정보 공유 및 협업 플랫폼이다.

글.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지리정보시스템과 도면 정보의 결합

어플리케이션 Sam은 Site Camera의 약자로, 현장 상황을 공유할 때 도면과 사진을 따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도면에 사진을 얹어 하나의 이미지로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

Sam의 기본 원리는 건설 현장 도면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결합해 내 위치가 도면에 자동으로 지도에 기록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내 위치에 사진이 저장될 뿐만 아니라 도면 위에서 동료가 작성하고 공유한 노트, 문서, 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치 네이버 지도에서 맛집과 평점을 조회하듯 내 위치에서 도면에 기입된 정보를 조회하고, 다른 팀원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추후 360 카메라, 실시간 스트리밍, 드론 영상, 3D 모델 등 다양한 기능을 연결해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am은 지도를 확대 축소하고, 도면, 사진을 조회할 때 지연 속도를 최소화했으며,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인접 사진을 효율적으로 클러스터링했다. 클러스터링된 사진들이 숫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작은 화면에 많은 사진이 담겨도 전혀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종이 도면을 출력하여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비대면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현장에서는 현장 내부 공유는 물론 본사 엔지니어나 협력 업체와 현장 상황을 공유해야 할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Sam에서는 공유하고자 하는 사진들을 선택하면 관련 도면까지 함께 공유되어, 손쉽게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사용자 경험에 따른 최적의 기능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끼고 생각하는 총체적 경험을 말한다. Sam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도면과 연결하여 Web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UX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들어간 시스템이다. 불필요한 클릭을 줄이고, 주요 경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등 각 주요 기능별 사용자 여정을 분석하고 최소화했다. 건설회사의 제품을 쓴다가 보다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 구글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최적의 UX를 가진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사용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다.

기술연구원은 향후 도면 기반 정보 공유 및 협업을 넘어 BIM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케줄 관리와 공정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BIM 공정을 기준으로 Sam과 연계하게 되면 여러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 BIM에서는 Sam에 필요한 정보를 교차 조회할 수 있고, Sam에서 입력되는 사진, 메모, 작업 등의 다양한 정보가 어떤 공정, 어떤 위치에서 이루어 지는지 더욱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주요 안전 관리 사항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해당 공종 작업 및 도면 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건설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연구원은 자체 개발 중인 인공지능 도면, 사진, 음성 인식 기능을 적용하여 현장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현장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다. 건설 정보를 데이터 관점에서 높은 가치로 인식하고 도면, 위치, 시간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혁신적인 일들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3.8km의 왕복 4차선인
아산천안고속도로 3공구는
당진과 천안을 잇는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으로
꼽힌다.

아산에서 천안까지 총연장 20.6km의 물류길

당진과 천안을 잇는 고속도로의 1단계 공사인 아산천안고속도로를 통해 천안 및 아산지역에 주요한 물류길이 열릴 전망이다. 아산 염치읍에서 천안 목천읍까지 총연장 20.6km를 연결한 이 길이 개통되면 충남 북부 지역에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를 통해 산업, 경제에 날개가 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산천안고속도로 3공구는 이번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으로, 3.8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이다.

“저희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현장은 아산천안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가장 난구간으로 꼽힙니다. 국가 하천인 곡교천과 21번 국도를 동시에 통과하는 배방대교를 시공하는 것이죠. 아산 지역의 대표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장검을 형상화한 높이 117m의 주탑이 저희 현장의 대표작입니다. 전체 도로가 개통되면 아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현장을 총괄하는 양재선 소장이 배방대교의 우뚝 솟은 주탑을 가리키며 설명한다.

양 소장의 말대로 3공구현장은 도로 예정 지역이 대부분 농경지일 뿐 아니라, 장항선 철도와 복수나들목 구간을 지나고 있어 난공사 구간으로 초반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한국도로공사 선정, 현장종합평가 우수현장의 영예를 안음으로써 또 한 번 회사의 명성을 드높였다.



아산시 대표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장검을 형상화한
높이 117m의 주탑
공사가 한창이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현장에 적용된 지진
격리받침은 교량구조물의
하중 전달과 회전,
신축거동을 원활하게 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한계 상태 설계법과 지진 격리받침 시공

아산천안 고속도로의 상징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방대교는 지금 현재 구조물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탑 상부 시공과 교량 상판-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 설치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이순신 장군의 기개를 담은 그 위용이 드러날 예정이다.

“배방대교는 2.5km 구간으로 저희 전체 공정의 대부분입니다. 교량공사인 만큼 하부공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하부구조에 상부 하중 및 내력의 한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한계 상태 설계법’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하부공사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품질팀 박원선 차장은 당시의 힘들었던 공사 상황을 떠올렸다. 현장 타설 말뚝작업은 장비가 투입되는 공정으로, 보통 24시간 이어지는 돌관 작업을 수반한다. 장비가 돌아가는 동안 지질 상태를 확인하고 타설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한다. 직원들의 땀과 눈물은 현장 타설 말뚝이 진행되는 9개월 동안 이어졌다.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현장에서는 한계 상태 설계법 적용과 동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 격리받침’을 시공하는 데 성공했다. 지진 격리받침은 교량구조물의 하중 전달과 회전, 신축거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진 시 마찰과 진자운동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진자형 교량받침이다. 국내에서는 초대형 교량받침 수급이 어려워 결국 중국에 위탁 제작을 의뢰했다. 또한 해당 규모의 국내 시공 사례가 없었기에 성능 검증을 위해 자문회의와 모의시험을 수차례 진행해야 했다. 사업단 승인에서 발주, 제작, 배송, 시공까지 1년 6개월간의 대장정으로 국내 최대 지진 격리받침 시공이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현장에서 적용한 런칭 크레인 공법은 교통 통제가 불가능한 도심지에 적용하는 공법으로, 교량 가설 시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거더 인양 및 가설이 가능하다.

품질성능지수평가 3년 연속 1위의 기록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현장은 도로 부지가 농경지인 데다가, 철도와 하천이 지나는 구간 또한 혼재되어 있어 교량을 시공하는 장비 반입 또한 쉽지 않았다. 하여,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현장에서는 일반 크레인 공법 대신 런칭 크레인 공법을 적용했다. 런칭 크레인은 해상에 위치한 교각, 교통 통제가 불가능한 도심지에 적용하는 공법으로 교량 가설 시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안정적인 거더 인양 및 가설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복수나들목 구간과 장항선 철도가 지나는 구간엔 런칭 크레인 공법으로 거더 인양을 진행했다.

“철도구간은 안전상의 이유로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촉박한 시간은 물론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람과 싸우며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사팀 강삼량 팀장은 작업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곡교천이 범람하며 기초가 잠겼던 일도, 바람이 많아 고소작업이 어려웠던 것도 다 추억이라 말한다.

하지만 난관 속에서도 머리를 맞대며 공사를 진행한 덕에 아산천안3공구현장은 현재 아산천안고속도로사업단 중 공정률이 가장 높다.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내실도 기하고 있는데,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현장은 한국도로공사 품질성능지수평가(QPI)에서 3년 연속 사업단 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 공정률 70%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착공으로부터 약 57개월이 흘렀다. 앞으로 22개월 후엔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우리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충남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는 동서 간 핵심축이 될 아산천안 고속도로에 많은 이용자의 이야기가 오가길 바란다.



“저희 아산천안고속도로3공구현장은 아산천안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가장 난구간으로 꼽힙니다. 국가 하천인 곡교천과 21번 국도를 동시에 통과하는 배방대교를 시공하는 것이죠. 직원들의 결심이 아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현장 소장 양재선 부장



안전팀



공무 품질팀



공사업

world report

베트남에서 온 세 개의 편지

Three letters
from the Vietnam

현재 베트남에는 회사가 2006년부터 착수해 온 하노이 내 신도시 개발사업 Star Lake PJ를 주축으로 THT법인, DECV법인, 2단계 인프라 현장, 아파트 1차 현장, 빌라 5차 3개 현장이 운영 중이다. 그 중 THT 2단계 인프라 현장 세 명의 직원에게 베트남 일과 생활에 대해 물었다.



약 34만(한반도의 약 1.5배)의 국토 면적, 남북 길이가 1,700km에 달하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베트남은 크게 북부의 하노이시와 중부의 다낭시, 남부의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1억 명의 인구, 평균 연령 30세로 매년 약 6%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매우 젊은 나라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국가(총 643억 달러)로 손꼽힌다. 제조업(473억 달러), 부동산(86억 달러), 건설업(28억 달러) 등 1992년 양국수교관계 이후 최근 신남방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양호 소장

2019년 7월부터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FED 발주 평택 주한미군기지 P2B 공사 100만 평을 준공했던 경험과 순천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현재 업무와 유사한 편이에요.



김희진 차장

2019년 7월 부임해 공무 총괄을 맡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영 안정공단과 거가대교현장 준공과 SOC 민자사업팀 등의 경험이 현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천 차장

공사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발령을 받은 지 1년 8개월 지났습니다.

Q1 나라의 첫인상은?

10만여 명의 교민, 한국어 초등 교육 등 한국과의 접점이 많아 친근했습니다. 10~20년 이내에 베트남이 아세안 정상에 설 것이라는 희망과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긴 승전국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최양호 소장

Q2 현장이 위치한 도시의 상징적 풍경을 꼽는다면?

90년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씨클로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주요 도시 관광객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는 너무 빠르고, 걷는 것은 너무 느리고 더울 때 씨클로를 타고 구시가지를 달리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Q3 이 나라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명소는?

사파는 자동차로 하노이에서 약 5시간 거리에 위치한 고산지대로, 베트남의 스위스라 불립니다. 인도차이나반도 정상인 3,134m 판시판산을 세계 최장 케이블카와 트램을 타고 오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 풍나 케방 국립공원에 있는 손동동굴을 추천합니다. 길이 8.8km, 높이는 건물 40층이며, 둘러보는 데만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할 만큼 큰 동굴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 볼 만한 곳입니다.

하노이 인근으로는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리는 짙안과 땀꼭을 추천하고, 하노이 내에서는 한국의 남대문시장과 같은 동쑤언시장도 한번 방문해 볼 만 합니다. 또한 베트남 스타일의 콩카페에서 코코넛 커피를 즐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Q4 현장에서의 특별한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현장 작업자도 여성이 꽤 많습니다. 노동시간 준수, 출산 시 유급휴직 등 노동법의 전반적인 수준도 높습니다. 또한, 세계 여성의 날과 베트남 여성의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기후적 특성으로 겨울철 눈을 볼 수 없어요. 크리스마스도 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특별한 분위기를 함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 직원, 현지 감리사 및 협력업체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토피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 시공관리가 되어 갈 때면 우리 현장의 슬로건인 '1 team fighting'을 새삼 느끼고는 합니다.



Q5 한국에 들어갈 때 꼭 챙기는 나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요즘 핫한 여행지 남부 푸꾸옥의 후추, 달랏의 차나 와인도 매우 유명합니다. 아내나 딸을 위한 여름용 라탄백도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베트남은 커피 생산국 세계 2위입니다. 향과 맛 등이 특별한 커피를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제격입니다.

베트남 내 인스턴트 커피의 개척자인 G7 커피가 유명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일부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Q6 해외 현장 생활을 하며 얻은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

베트남 사람들은 다소 느긋하고, 삶의 행복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에 대한 존중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타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문화 및 사고방식 등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배려, 존중, 포용력 등을 배웠습니다.



베트남은 평균 나이 28세의 젊은 나라이며, 근면, 성실, 인내, 친절 및 용기를 갖추고 있는 국민성을 가졌습니다.

김희진 차장



하노이는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거치면서도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해 온 곳입니다. 곳곳에서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 점령 당시 지어진 성요셉성당은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고, 오페라하우스는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 이국적 분위기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근면한 면이 있으며, 강한 자존심과 승부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낙천적인 면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원유천 차장

모계사회, 남녀평등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오토바이를 이용해 직장으로 출근하는 남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종이나 나이로 남을 평가하거나 강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THT 2단계 인프라 공사



공사명
베트남 THT 2단계 인프라 공사

사업내용
총 187ha(1단계-115ha, 2단계-72ha) 중 2단계 인프라 공사
- 토공: 굴착 32만, 모래성토 107만
- 우수: 10,537m, 상수: 22,479m, 오수: 10,262m
- 도로: 8,577m
- 전기, 통신, 조경

공사기간
36개월

당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 THT법인이 발주한 Starlake PJ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도심지 내 187ha(57만 평)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중 2단계 72ha(22만 평)의 지하 유틸리티(오수, 우수, 상수, 전기, 통신 등)와 부지조성을 완료하는 공사로, 이로써 우리 회사는 수도 하노이 내 최대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해외 디벨로퍼로 우뚝 서게 된다.

또한, 베트남 내 최초로 스마트 건설을 도입해 공사 중 드론을 활용한 시공관리, BIM을 기반으로 3D 모델링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증강현실(AR)을 공사관리에 접목하고 있다. 향후 준공 시 베트남 내 스마트시티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guide for better life

how to — 42

내일 더 가벼워져라, 버리기 연습

special day — 44

이렇게 맛있는 채식이라면, 비건식

from the city — 50

이산화탄소 배출 0%의 계획도시,

마스다르

40,000 km

40,000km, 1년 간 국내 1개 기업에서 발급된 종이 영수증의 길이

지난 2019년,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D그룹에서 발급된 종이 영수증은 약 1억 6,000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영수증 1장 당 평균 길이가 25cm인 것을 감안하면 지구 한 바퀴 즉, 약 40,000km와 맞먹는 길이인데요. 이를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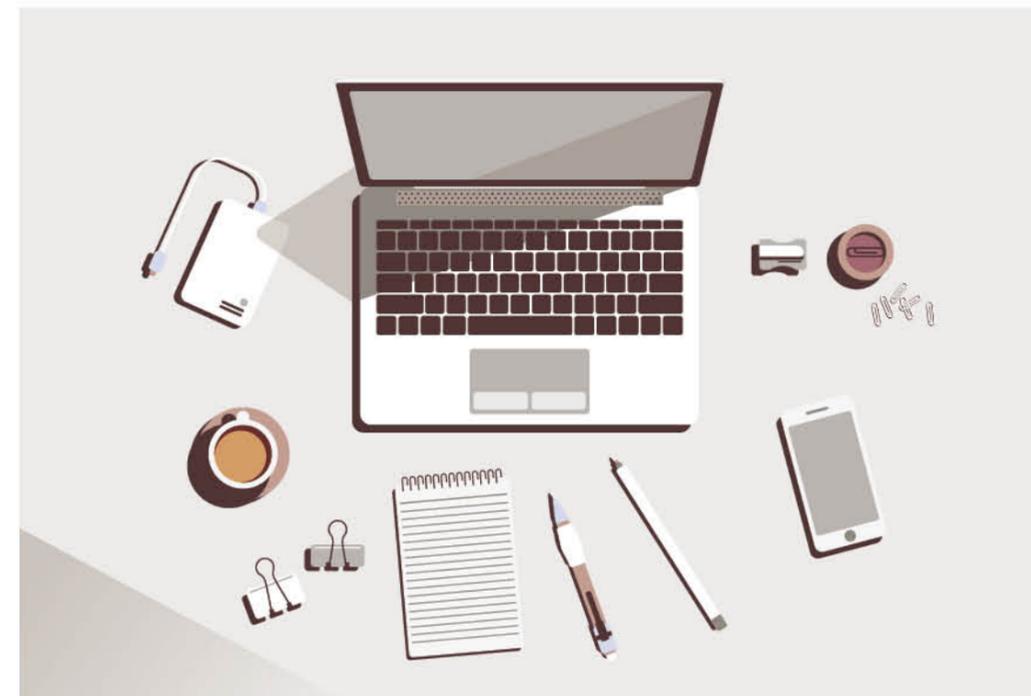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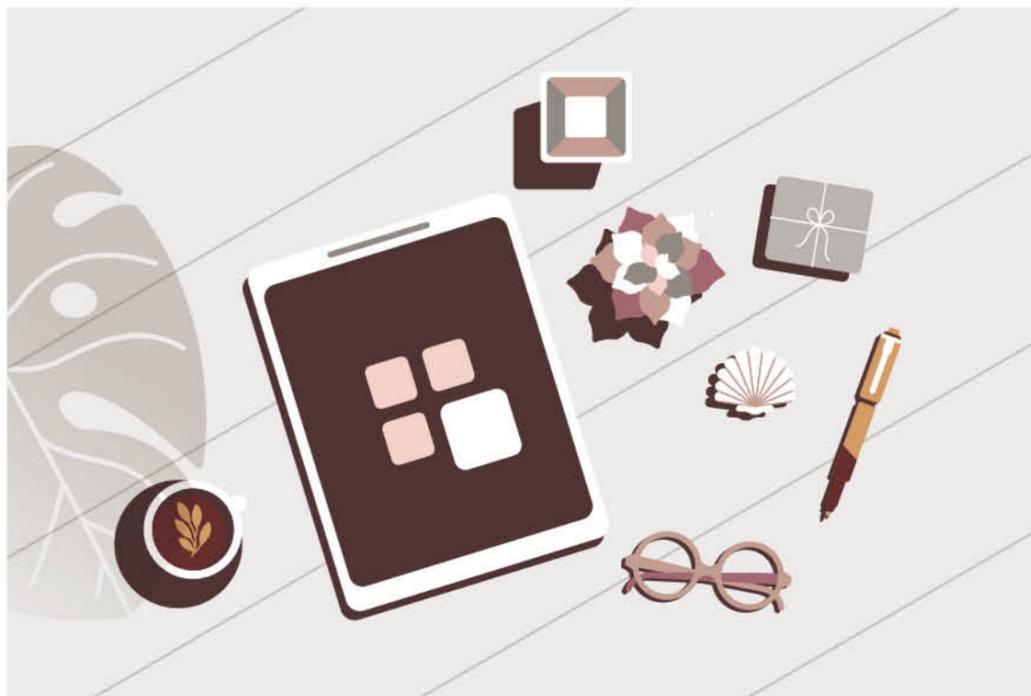
30년산 원목 1,7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우건설인〉 Guide for better life 섹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how to

내일 더 가벼워져라, 버리기 연습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가 머무는 공간을 살펴보는 것이다. 정돈된 마음과 재빠른 두뇌회전을 원한다면, 내 방 그리고 책상 위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비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자.



at home

- 지난 1년간 입은 적 없는 옷
-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현재 내 취향이 아닌 옷
- 오직 추억 때문에 남겨둔 물건
- 안 쓰는 취미용품
- 제품 구입 시 받은 무료 샘플
- 처방받고 먹지 않았던 약
- 언제 구입한 지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식료품

상쾌한 기분이 솔솔!

보다 넓은 활동반경과 사유를 위해 버릴 것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물건, 언제 쓸지 몰라 고이 묵혀둔 물건, 할인받기 위해 묶음으로 구매한 물건. 방 안 물건을 정리하고자 마음먹었다면 버리기의 기본 3단계를 따라가보자.

제1단계는 물건의 사용 가능/사용 불가 여부를 나누는 것.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쓸 수 없는 물건이라면 버리는 것이다. 1단계에서 살아남은 사용 가능품들은 두 번째 단계에 따라 거른다. 그 2단계는 사용/미사용 여부다. 이 단계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필요 없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성공이다. 버리기의 마지막 3단계는 미사용품에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안 쓰는 물건을 품목별로 정리한 그중 하위 2개를 정해 버리도록 하자. 못 쓰는 물건과 안 쓰는 물건 중 1~2순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버리는 것이 내 방 비우기의 핵심이다.

at office

- 검정 볼펜, 지우개 등 같은 품목이 2개 이상인 것
- 남의 눈을 의식해 갖고 있는 물건
-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쓸 수 있는 용품
- 최신 버전이 아닌 서류
-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자료
- 인터넷, 다른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
- 책상 여기저기 붙어 있는 포스트잇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짝!

활주로 같은 책상을 만들기 위해 버릴 것

사무실 책상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류다. 불필요한 서류는 없지만, 필요한 서류가 꼭 책상 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업무 분야가 무엇이든 '종이를 책상 위에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면 책상 정리의 절반이 해결될 것이다.

서류 정리의 시작은 바로 분류. 지금 사용하는 것, 한동안 필요한 것, 보관해야 할 중요한 것을 나누어 따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버린다.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하거나 기록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스캔하여 데이터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주 연락하는 번호나 로그인 정보를 포스트잇에 붙여 두었다면 PC 내에 엑셀 파일을 만들어 정리하거나, 바탕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PC용 포스트잇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special day

이렇게 맛있는 채식이라면!

VEGAN DIET



채식을 추천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소화가 잘되고, 환경은 물론 동물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솔깃하지만,
 빈번한 외식과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 앞에서 채식을
 고집하기란 쉽지 않다. 두 자녀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고 싶다는
 컴플라이언스팀 조유현 과장이 아이들과 조금 색다른 식탁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조유현 과장과 자녀들의
비건 레스토랑 방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음식 섭취별
채식 단계



비건
동물성 식재료가 조금이라도 섞인
음식은 아예 먹지 않고 채소와 과일만
섭취하는 완전 채식주의자. 육류는
물론 우유, 계란 같은 동물의 알, 심지어
꿀도 먹지 않는다. 동물성 식품 중
함량이 높은 비타민B, 비타민D,
칼슘, 아연의 섭취량이 매우 부족할 수
있다. 매일 다양한 콩과 견과류 등을
챙겨 먹도록 한다.



락토 베지테리언
우유와 유제품 등 식물성 식품은
먹는다. 철분과 비타민B,
아연, 오메가3지방산 섭취에 신경
쓰도록 한다.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우유와 유제품, 달걀, 식물성 식품까지
먹는다. 철분과 비타민B, 아연 섭취
부족이 우려된다. 특정 질병이 없다면
달걀을 하루 1개 정도 챙겨 먹도록 한다.



새미 베지테리언
육류만 제한하고 생선, 달걀, 우유,
유제품 식물성 식품을 먹는다.
등푸른생선류와 굴, 조개 등의
해산물을 섭취하면 좋다.

왜 많은 이들이 '채식'을 외칠까

건강, 환경 혹은 개인의 신념을 위한 채식 인구가 증가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비건식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건식이란 육류를 비롯해 생선, 달걀, 우유 등의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2008년 15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채식
인구는 2019년 기준 200만 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채식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사회 곳곳에 조성되고 있다. 비건을 지향하는 이들의 이유는
인스턴트나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 저하 등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큰 한 가지는 비윤리적인 대량 축산업과 공장식 사육에
반대하는 '동물권'이다. 지구상의 동물 중 인간이 사육하는 동물의
수는 무려 67%. 그 동물을 기르기 위해 방목지를 만들고 산림을
태우거나, 동물을 기르는 등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육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만 해도 무려 1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일주일에 단 하루만 고기를 먹지 않아도,
자동차가 1.6km를 달리며 내뿜는 양과 동일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과 오직 단 한 끼, 비건 체험 나서기

비거니즘이 식생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크나 가죽 등
동물로부터 얻은 원료로 만든 옷이나 액세서리, 동물실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양식을 통틀어 '비거니즘'이라 부른다.
비건을 위한 패션, 뷰티 아이템 등이 늘어나며 생활 속 비거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진입장벽도 훨씬 낮아졌다.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생야채만을 먹는 것이 채식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다면, 야채를
활용해 근사한 요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비건을 위한 햄버거,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할
직원과 가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special day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에게 연락 바랍니다.

“ — ”
그동안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일 수 있을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꼭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맛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도 선보여지는 추세다. 라면, 만두와 같은
간편식에서도 100% 비건식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채식 전용 레스토랑 및
베이커리는 300여 곳으로, 5년 새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근무하는 조유현 과장과 두 자녀가 오늘
채식을 경험하기 위해 방문한 곳은 집 근처 마곡에 위치한 비건
레스토랑 '공간 녹음'. 조 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민서의 식습관과 건강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었다. "부부가 맛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기 어려워요. 아침은 차려 두고 나오지만, 점심은 주로 간편식
위주로 준비하죠. 결국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고기 위주의 반찬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침과 점심을 잘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녁에는 과식하는 경우가 잦았어요."

콩고기로 맛을 낸 비건 탕수육과 햄버거

오늘 조 과장의 가족이 방문한 곳은 비건들이 마음 놓고 모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100% 비건 레스토랑. 본식부터 소스, 음료 등 모든
음식에 동물성 식품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 선별에 가장
고심한다. "보통 식당에서 쓰는 공산품들에는 대부분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요. 식물성 식품과 콩으로 만들어진 간장, 다시다, 중화소스
등 대신할 식재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조유현 과장은 평소 야채를 즐겨 먹지 않는 아이들이 채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식문화에 도전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족들이 주문한 음식은 버섯과 마늘로
맛을 낸 머쉬룸 갈릭 버거, 비건 탕수육, 포도도로 파스타 그리고
후무스, 비건 치즈, 갈릭 마요네즈를 곁들인 베지 플레이트다. 콩고기와
견과류를 섞어 만든 햄버거와 탕수육은 그 생김새나 냄새부터
일반 고기로 만든 그것들과 다를 바 없다. 음식을 맛본 아이들 역시
의외라는 표정이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채식에 대한 얘기를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채소만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먹는 탕수육이나 햄버거는 진짜 고기로 만든 것과 구분이 어려워요.
신기하네요." 조유현 과장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이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일 수 있을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꼭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맛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콩고기를 만들어 조리하는 건 당장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함께 곁들이는 소스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더
맛있게 먹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채식에 대해 막연한 부담을
갖기보다는, 고기 섭취를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한 번쯤
실천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작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Vegan Restaurant

조유현 과장의 비건 레스토랑 체험기

비건 탕수육

콩고기는 콩으로 고기의 식감을 재현한 식물성 대체육이에요.
밀가루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을 가루로 만든 뒤 고기 형태로 문쳐 만드어요. 고기는
물론 중화소스에도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고기와의 맛이 아주 흡사해 민서가 특히 좋아했습니다.

포도도로 파스타
가장 기본적인 토마토
파스타를 포도도로
파스타라고 해요.
잘 익은 토마토를 골라
페이스트 상태가 될 때까지
볶은 뒤 마늘, 양파,
양송이 버섯 등을 잘게
썰어 찐 맛을 더해줘요.
고기 없이도 감칠맛이
충분해요.

머쉬룸 갈릭 버거
콩고기 패티를 넣어 만든 햄버거예요. 마요네즈 소스 역시
우유가 아닌 두유와 오일을 넣어 만들었어요. 콩고기와 소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전혀 딱딱하지 않았어요.

베지 플레이트
후무스, 비건 치즈,
갈릭 마요네즈가 돋보이는
베지 플레이트예요. 후무스는
별리콩을 삶은 뒤
뜨개 만드는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해요. 세 가지 소스 모두
고소하고 담백해 야채와 잘
어울렸어요.



from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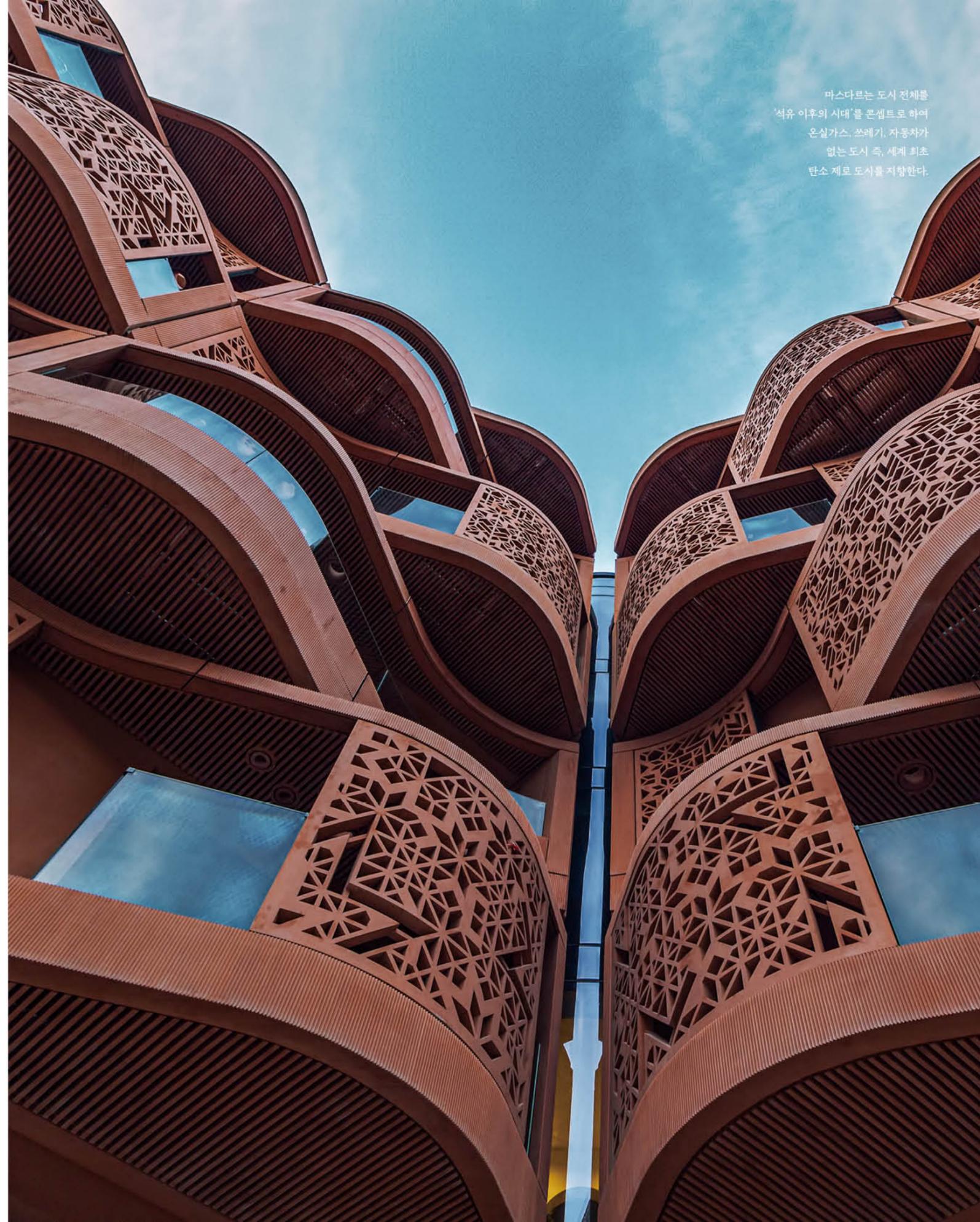
Carbon Neutral City,

Masdar

탄소 중립 도시, 마스다르

바다에 매장된 유전을 발견한 1960년대 이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원유가 많은 나라로 손꼽히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랍에미리트는 현재의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태양에너지 사용 90%를 꿈꾸는 친환경 계획도시 마스다르다.

마스다르는 도시 전체를 '석유 이후의 시대'를 콘셉트로 하여 온실가스,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즉, 세계 최초 탄소 제로 도시를 지향한다.





도시 인근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건물 대부분의 지붕 및 외벽에 박막태양전지 소재를 활용해 도시 전체가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태양에너지 90% 사용을 꿈꾸는 미래 도시

'유전 국가'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가 그동안 원유를 활용해 축적해온 거대 자본을 이용하여 신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수도인 아부다비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 마스다르가 그것이다. 도시 전체를 '석유 이후의 시대'라는 콘셉트로 하여 온실가스,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즉, '세계 최초 탄소 제로 도시'를 지향한다. 화석연료 대신 태양열, 지열,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섭씨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과 중동의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태양에너지로부터 90% 이상의 전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도시 인근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건물 대부분의 지붕 및 외벽에 박막태양전지 소재를 활용해 도시 전체가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도시 내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열발전소와 태양열 패널이 곳곳에 넓게 펼쳐져 있어 2009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다.

에너지를 모으고 온도를 낮추는 통합 디자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통합 도시 디자인에도 고심하고 있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40%가량 절감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로 주목받았다. 도시 내부에 위치하여 자연 바람을 적극 활용하는 45m의 탑 윈드 타워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탑 안쪽에 물 분사 장치를 설치해 도심의 온도를 순환시키고 건물 주변의 전체 온도를 낮추는 원리다. 또한, 대부분의 건물을 10층 이하로 짓고, 사람들의 이동 경로마다 그들이 생길 수 있도록 골목 형태로 길을 구성하며, 건물 1층을 모두 보행자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 외곽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통로를 깔때기 모양으로 좁아지게 해 도시 전체의 바람이 가운데로 모일 수 있게 만든 것 역시 지능형 설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사례다.

뿐만 아니라 건물 곳곳에 풍력 터빈을 설치해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게 했다. 사막에서 도시로 불어온 바람은 이 풍력 터빈을 거쳐 전기에너지로 변환된다. 풍력 터빈을 거친 찬바람은 지하수와 연결된 기다란 관을 통해 지하수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까지 한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기 자동차

자동차 없는 도시 역시 마스다르의 주요 계획 중 하나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로화하기 위해 도시의 모든 교통을 전기화한 것. 장거리 대량 수송은 철도가 대신하고, 개인의 근거리 이동은 개별 전기차 시스템이 담당한다. 도시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나 방문객들은 도시 외곽 주차장에 개인 차량을 세워둔 뒤,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며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LRT(Light Rail Transit)을 이용해 도심으로 접근하고 개별 목적지로 이동할 때는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PRT(Personal Rapid Transit)를 활용한다. 길이 3.8m, 높이 1.95m의 PRT는 규모가 크지 않아 도시의 골목길 곳곳을 다닐 수 있으며, 평균 시속 약 40km로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LCD로 차량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패널이 탑재되었다.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자동차와 개인의 집 모두 ICT 기술로 연결되어 개인별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반면,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계획도시인 만큼 시행착오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대학과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제로 도시의 탄생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이 3.8m, 높이 1.95m의 PRT는 규모가 크지 않아 도시의 골목길 곳곳을 다닐 수 있으며, 평균 시속 약 40km로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DAWOO E&C with MASDAR

UAE RRE Tank PJ(2009.12~2016.03)

*RRE: Ruwais Refinery Expansion Project(EPC Package 4)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250km 떨어진 루와이스 국가의 석유산업단지. 그곳에서 진행 중인 정유공장 확장 공사 중 4번 패키지다. RRE 현장에서 시공한 직경 120m의 원유 탱크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서 회사의 플랜트 기술을 입증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회사는 설계, 구매, 시공을 아우르는 EPC 형태로 이번 PJ를 단독 수행했으며, 총 76기의 탱크 저장시설과 부대시설을 공사하며 원유 탱크 3기를 비롯해 1.2차 증류시설을 거쳐 생산된 가솔린과 디젤, 액화프로필렌, 나프타 등을 보관하는 탱크까지 함께 시공함으로써 원유 종합 저장 시설로서 위상을 높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사전에 검토해 설계 단계부터 환경오염 물질 저감 설계를 사업장에 적용한 친환경 PJ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우건설인+

“4개월 된 제 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IT기획팀
Engineer, Jose Sante Valparaiso

from. sante

“

김재성 차장님!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차장님의 모든 열정과 시간, 공감과 위로의 감정 등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차장님의 이런 진심과 선의가 삶의 큰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대우건설에 입사한 뒤 김재성 차장님과 함께 일하며 점점 편안함을 느낄 때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둘째 딸이 심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와 가족이 걱정되었고, 김재성 차장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차장님께서도 놀라셨을 텐데 곧장 저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이를 기꺼이 돕겠다’는 차장님의 한마디가 제 삶의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되었죠. 그 말을 시작으로 제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였고 결국 차장님을 통해 한국심장재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아주 험난했지요. 도움을 요청한 기관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재단에서의 지원 불가 답변이 이어지면서 둘째 딸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며 한국까지 왔지만 수술을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심장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삼성병원의 뛰어난 수술 기술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IT기획팀 Sante의 고향 필리핀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4개월 된 둘째 아이가 VSD*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필리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 소식을 들은 IT기획팀 김재성 차장과 주변 동료들이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현재 Sante의 가족은 무사히 한국에서 수술을 마친 뒤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그들의 지난 4개월 이야기를 간략히 공유한다.

*VSD: Ventricular Septal Defect(심실중격결손)

또한 한국심장재단에서 수술 비용의 10%를 지원해 주었고,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퇴원해 현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하루에 2번씩 3종의 약을 먹었지만, 지금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살도 많이 올랐고요. 아이를 볼 때마다 저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IT기획팀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기간 긴 여정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함께 걱정해 주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용권 실장님, 박상현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 가족들의 여권과 비자 발급 지원,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 및 외국인 등록증 등의 서류 발급, 항공권 예약에 도움을 주신 글로벌지원팀 홍성남 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항상 대한민국과 대우건설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IT기획팀
김재성 차장



from. jaesung

“

Sante!

앞으로도 든든한 아빠로서, 행복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곳곳하게 잘 견뎌낸 시간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위급한 순간에 나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 주어 고맙고, 덕분에 나 역시 생명을 살리는 뿌듯한 감동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

작년 3월, 플랜트 BIM 해외 경력직 채용을 통해 Sante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채용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친화력, 추진력 등 모든 면에서 본받을 점이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10월, 둘째 딸의 병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올해 3월에 태어난 둘째 딸이 건강검진에서 VSD 판정을 받았다고요. 큰 딸도 동일한 진단으로 수술을 한 경험이 있지만 큰 아이는 만 1세가 넘는 상태였고, 당시 심장 내 구멍의 크기도 둘째 아이만큼 크지 않아 치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태어난 지 갓 4개월, 게다가 구멍의 크기도 10mm 이상으로 커서 필리핀 현지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문득 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슈퍼 울트라 캡송 까칠한 중학교 1학년이지만, 저희 아들도 태어나서 2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안 된다고 하니, 한국에서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 심장수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접촉해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이 가능한 한국심장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음으로 필리핀 현지 검사 자료를 전달받아 한국 병원에 외래진료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가능했으나,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의 수술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가족을 하루라도 빨리 입국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회사의 글로벌지원팀과 필리핀 주재 한국 영사관의 도움으로 여권과 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항공권 구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결정된 국토부 지침에 따라, 예약한 항공편에서 외국인 탑승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른 항공편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동안 코로나19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가족들의 입국 날, 입국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핑둥~”하고 울리는 문자 소리! 무사히 입국했다는 Sante의 연락에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려버렸네요. 2주간의 격리를 마친 뒤 수술을 앞두고도 ‘아이의 체중이 너무 적은 데다, 수술 중 구멍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병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대로 결국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현재 아주 씩씩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던 Sante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상공감툰

글/그림 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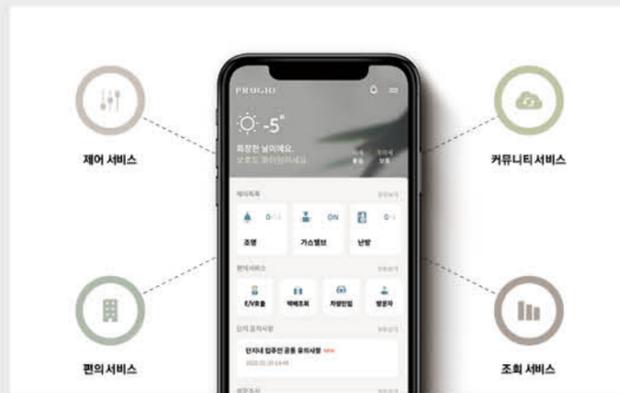
<시간여행>





CEO 안전점검 실시

지난 2월 24일, 경부고속도로직선화3공구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 사장은 형식적인 안전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시를 당부했다.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 진출

회사는 지난 2월 23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아이티로에 투자하며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 2019년 푸르지오 스마트홈 개발을 시작으로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으며, 회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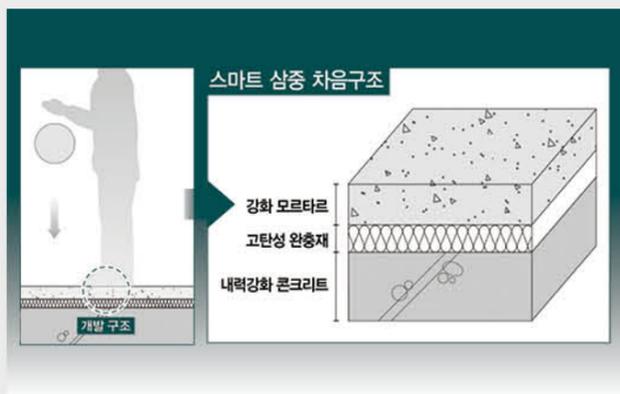
원격 드론 관제 사업 본격화를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와 MOU체결

회사는 2월 4일, 원격 드론 관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2019년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DW 드론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25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협력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건설분야 외 소방, 인명 수색, 해안 정찰과 같은 다양한 산업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배경화면 배포

회사의 대표 공사 실적 사진과 푸르지오 입주 단지 및 건본주택의 인테리어 사진을 활용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의 배경화면을 제작하여 2월 3일부터 일반 소비자에 배포를 시작했다. 회사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와 화상수업 등 줌(Zoom)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소소한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이번 배경화면을 제작했다.



층간 소음 저감 스마트 3중 바닥구조 개발

2월 18일, 회사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쳤다. 기존 아파트 바닥구조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성능이 강화됐으며, 시공에 있어서도 공기가 3일 가량 단축되고,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시공하기 편한 장점이 있다.



4D 스마트 모델링 프로그램, 스마일(SM.ile) 개발

지난 2월 16일, 회사는 4D 스마트 모델링 프로그램인 스마일(SM.ile)을 개발했다. 스마일은 회사가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4D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토공사, 골조공사의 모델링 시간 단축뿐 아니라, 실시간 시공 계획 수립을 통한 최적공법 선정 공사 물량 및 공사기간 산출이 가능하다.



5년물 회사채 발행 성공

회사가 2년 만기의 2,400억 원의 회사채 중 1,100억 원을 차환 발행했다. 전액 사모로 조달한 이번 회사채는 3년에서 5년물이다. 5년물 회사채 발행은 A-등급 및 건설업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과 민평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사모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2021 경영전략 워크숍 개최

2021년 경영전략 워크숍이 지난 1월 29일,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에서 2021년 회사의 사업 계획 목표 및 중장기 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1+2 독자의견



애플 에어팟 2세대

① 등

최준희(나이지리아NLNG T7 ONSHORE PJ(JV현장) 최종진 부장)
 '도시'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시 수많은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from the city 칼럼을 읽고 '정원 속 도시'라는 비전 아래 싱가포르가 주도하는 그린 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는 달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린 산업!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싱가포르에 방문해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물들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② 등

윤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현장 이승대 대리
 Theme share 칼럼 페이지를 무심코 넘기다 옛된 얼굴의 공사팀 직원 사진을 보게 됐어요. '어느 현장이지? 힘들겠네'라고 생각했죠. 알고보니 현장 소장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자 소장님의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나중에라도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한윤서(주택건축기획팀 한영호 차장)
 world report 칼럼이 인상적이었어요. 필리핀에는 눈이 안 내린다니! 눈사람 만들기는 아주 재미있잖아요. 눈 대신 플라스틱 컵을 엮어 눈사람을 만든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③ 등

투자관리팀 정민용 대리
 주택사업본부 소속이 아니라, 푸르지오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고도화되고 유지되는지 직접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수원역 푸르지오자이현장 기사를 통해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군 푸르지오와 브랜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혜수(서대문푸르지오센터파크현장 장문영 대리)
 제로웨이스트샵 방문 기사를 보고 내 아이는 물론 후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일회용품을 가능한 적게 사용하려 하는데,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알게 되어 유용했습니다.

석유화학사업팀 문혁기 과장
 벌써 2021년의 3월이 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다짐이 허물어지던 즈음, 나를 깨우는 한 문장,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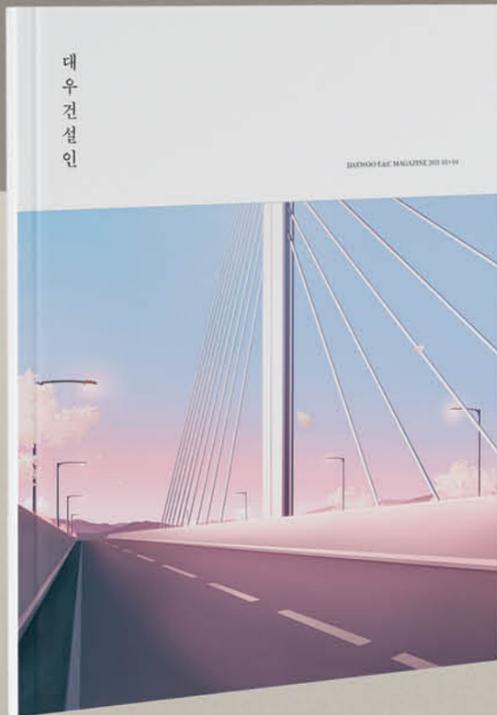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해 모바일 버전 <대우건설인>을 만나 보세요. 독자 퀴즈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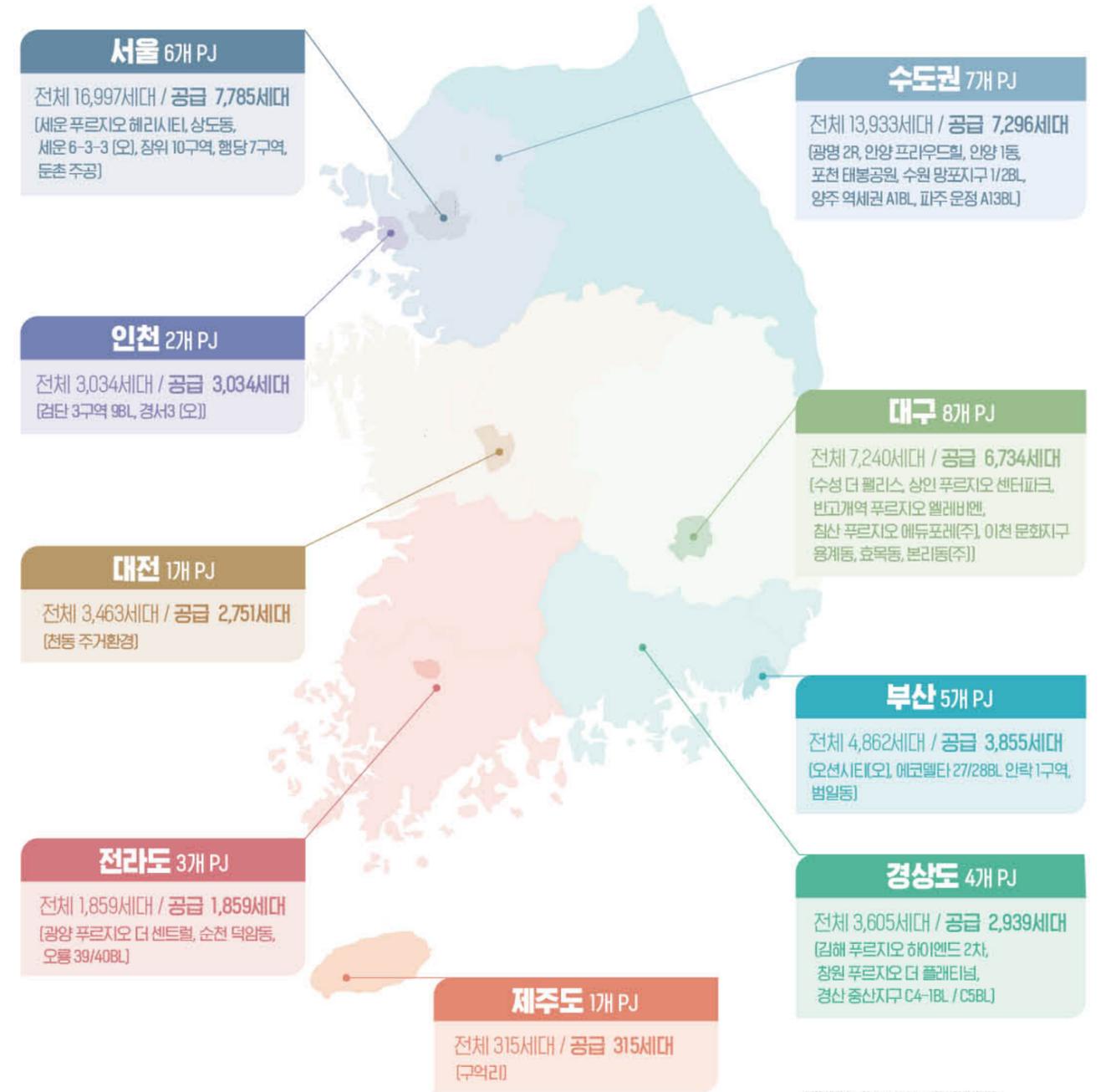
<이번 호 선물>

- 1등-1명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10ml 50포
- 2등-2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 3등-3명 기프티콘 2만 원 상당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cnc.com | 02-2288-3297



2021 푸르지오 분양단지 미리보기



전체 세대수 = 일반 + 보루지 + 조합 + 임대 세대수
 (주)주상백철, (주)오고스빌, (생)생활형 숙박시설
 PJ명 / 분양일정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